

호남의 전략적 선택 ... 민주당 경선 끝낼까 이어갈까

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 경선...온라인 투표 21일부터 진행
이재명 대세 굳히기냐 이낙연 반전 계기 만드느냐 초미의 관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 지역 경선(25-26일)을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광주·전남지역 권역당원들의 온라인·ARS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속성된 호남 민심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호남 지역은 대의원과 권역당원 규모가 전체(71만9000여 명)의 30%(20만30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충청, 대구, 경북, 강원지역 권역당원을 합친 수보다 두 배나 많은 수준이다. 그동안 호남 경선에서 1위를 기록한 후보가 대선행 티켓을 따왔다는 점도 주목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일단 관전포인트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차 슈퍼 위크 과반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며 호남에서도 1위를 차지해 '대세론'을 굳힐지, 전남 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의 지지를 발판으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내느냐 여부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측불허 양상이다.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논란'과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 배수진에 호남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혼전 양상을 나타냈다.

이 지사 측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 호남에서의 승리를 자신하면서도 호남 민심 특유의 전략적 선택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 대의원과 권역당원은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지사 측에서는 '호남민심의 방점은 정권재창출에 찍혀있다'는 점에서 이 지사가 대세론을 바탕으로 과반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될 사람 밀어주는' 결집력이 큰 호남 민심이 이 지사를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만들어내면서 갈등의 경쟁 구도를 종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호남지역 경선은 이 지사에게 정권재

창출의 과제와 동력을 동시에 부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에서는 호남의 전략적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 호남 민심이 이 지사의 대세론에 편승하기보다 전남 출신의 이 전 대표에게 기회를 주면서 경선 판을 뒤흔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해 결선투표 가능성을 높이는 등 역동적인 경선 판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다. 이 지사의 대세론이 조기에 자리 잡는다면 경선의 힘이 빠지면서 정권재창출의 동력도 그만큼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선택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광주에서는 이 지사가, 전남에서는 이 전 대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전북의 선택에 '호남 대전'의 승부가 갈리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호남 민심이 '이 지사의 대세론을 유지시켜 주면서도 이 전 대표에 추격의 동력을 부여하는' 황금 분할 양상의 지지를 보낼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이 지사가 1위를 차지하고 이 전 대표가 뒤를 바짝 쫓는 득표율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두 자리 수 득표율 확보 여부도 관심사다. 추 후보의 선전은 이 지사의 개혁 표심을 잠식하면서 과반 지지 확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위권에 처한 박용진·김두만 의원이 호남 경선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획득, 경선 전주의 동력을 확보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나타난 이 지사 측과 이 전 대표 측의 날 선 경쟁에 대해 지역 민심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도 변수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에서 민주당 주자들이 통합과 비전의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한 민심이 있다"며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이전투구에 호남 민심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도 변수"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고향의 정 안고 다시 일터로...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2일, 고향 방문을 마친 귀경객들이 광주송정역에서 서울행 열차에 오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추석 연휴 코로나 확진자 200명 넘게 쏟아졌다

5일간 광주 163명·전남 54명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 우려

광주·전남에서 추석 연휴 동안 2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추석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19 감염 잠복기 등을 감안하면, 다음 주가 추가 확산 여부를 결정 짓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26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4751명을 기록했다. 동구 소재 목욕장 관련 4명을 비롯한 광산구 소재 외국인 등 3명, 제조업 관련 1명, 기획직자 관련 8명, 타 시도 관련 2명, 유증상 검사 8명 등이다.

광주에선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8일 22명을 시작으로, 19일 35명, 20일 40명, 21일 40명 등 연휴 5일간 163명이 신규 확진됐다. 연휴 동안 외

국인 관련이 57명(35%)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감염 42명(26%), 지인감염 36명(22%), 제조업체 등 직장 감염 34명(21%), 타 시도 관련 22명(14%) 등이었다. 나머지 5명은 해외유입 이었다.

이에 따라 광산구 소재 외국인 등 검사 관련 누적 확진자가 273명으로 늘었고, 외국인 고용사업장 관련 106명 등 지역 내 외국인 관련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행히 아직까지 대부분 지역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제조업체 관련이지만, 추석 연휴 이후 고향 방문 등에 따른 추가 감염이 겹친다면 연대급 확산세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우려다.

전남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연휴 동안 16개 시군에 걸쳐 모두 54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924명이 됐다. 일별 확진자는 지난 18일 12명, 19일 6명, 20일 7명, 21일 23명, 22일 오후 2시 현재 6명이다. 지역별로는 순천 12

명, 광양 8명, 여수 7명, 목포 5명, 장성 4명, 나주·신안 각 3명, 고흥·완도·담양 각 2명, 화순·해남·함평·영광·영암·무안 각 1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 지역 내 확산과 함께 연휴 기간 추가 감염이 겹치지만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타지역을 방문했거나, 타 지역 거주자와 접촉한 시민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당분간 모임 자제 등 기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김형호 기자 lucky@kwangju.co.kr

해남에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전남도 "사업비 4079억원·취업자 3847명 전망"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 영향과 대응 방향 설정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부지로 해남군이 최종 선정됐다. 전남도는 22일 "지난해 장성 아열대작물실증센터에 이어 기후변화대응센터까지 유치하면서 전라도가 대한민국 기후변화대응 중심지로 부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총 407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ha 부지에 정적지원부, 기후데이터부, 첨단인프라부, 기후변화대응 종합 홍보관 등 시설을 갖춘다. 생산유발효과 6004억원, 부가 가치 1965억원, 취업 3847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남도는 기후변화대응센터의 해남 유치에 따라 함평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지원개발부, 장성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무안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고흥 아열대 중심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기후변화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 기후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남을 비롯해 충남, 충북, 경남 등 4곳이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였다. 전남도는 기후변화대응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점과 연구 최적 지임을 집중 부각해 이번 성과를 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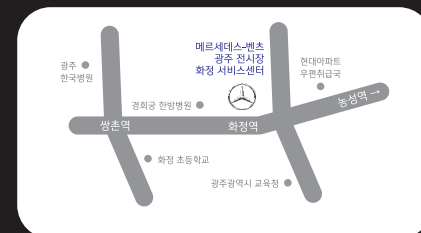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Mercedes-AMG GLC & GLC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Mercedes-AMG를 직접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Mercedes-AMG GLC 43 4MATIC (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1,955kg, 지동9단, 복합연비 8.3km/ℓ, 도심연비 7.5km/ℓ, 고속도도연비 9.6km/ℓ), 5단급, 복합CO₂ 배출량 212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의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가격은 국내 시판가 기준입니다.